

# 전남 논벼 재배면적 924ha 줄고 '금파' 영향 대파는 35%나 늘어

## 지난해 주요 농작물 재배 현황

양파 노지 재배면적 18% 증가

배추 15.1%·무 2.4% 감소

배 19% 늘고 사과 63% 급감

6년 만의 쌀 풍년을 맞은 지난해 전남지역 논벼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에서는 14개 시·군 논벼 면적이 줄어든 반면, 쌀 최대 주산지인 해남은 14.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통계청 농업면적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논벼 재배면적은 73만2070ha로, 전년보다 0.8%(5890ha) 증가했다.

전남 논벼 면적은 15만5101ha로, 전년보다 0.6%(-924ha) 감소했다. 전남 재배면적 비중은 전국의 21.2%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전남 논벼 면적은 10년 전인 2011년(17만2842ha)과 비교해서는 10.3%(-1만7741ha)나 감소했다.

지난 10년 동안 광주 북구(1만2028ha)와 남구(6102ha)를 합한 규모의 논벼 면적이 사라진 셈이다. 지난해 전남에서 924ha 가량 논벼 재배면적이 감소한 가운데 22개 시·군 중 14곳은 논벼 면적을 줄였다.

전남 시·군 중 재배면적이 가장 적은 목포는 전년보다 23.0%(109ha→89ha)나 줄었다.

곡성(-12.9%)과 담양(-9.2%), 함평·화순(각 -9.0%), 신안(-8.8%) 등 14개 시·군 논벼 면적이 감소했다.

반면 전국 최대 쌀 주산지인 해남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4.6%(2703ha) 증가한 2만1170ha로 집계됐다. 해남 면적은 전국에서 2.9%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대파 최대 주산지인 전남 재배면적(노지 기준)은 전년보다 34.9%(1138ha) 증가한 4400ha를 기록했다.

전국 대파 면적도 1만1400ha로, 17.1%(1662ha) 늘었다.

지난해 초부터 대파 가격은 이상기후 등 영향을 받아 금파 파동이라 불릴 정도로 급등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전남 대파 면적은 지난 2004년(4568ha) 이후 17년 만에 가장 넓었다.

가격 오름세를 겪은 양파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전남 양파 노지 재배면적은 6775ha로, 전년보다 18.0%(1032ha) 증가했다.

반면 노지 배추 면적은 전년보다 15.1%(-1327ha) 감소한 7439ha, 무 면적도 2.4%(-30ha) 줄어든 1237ha를 기록했다.

전남이 최대 주산지인 배 재배면적은 지난 2020년 2143ha에서 2552ha로, 19.1%(409ha) 증가한 반면, 사과 면적은 63.1%(562ha→208ha) 급감했다.

식량작물 가운데 전남 보리 재배면적은 1만7874ha에서 1만4491ha로, 18.9%(-3383ha) 감소한 반면 밀 면적은 1.5%(2337ha→2372ha) 증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농지은행관리원 나주 혁신도시서 업무 시작

### 농어촌공사 본사서 현판식

전국 농지현황을 상시 조사할 '농지은행관리원'이 지난 18일 한국농어촌공사 나주 본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사진>

농지은행관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축발된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의 하나이다.

올해 예산으로는 48억원이 배정됐으며 나주 본사 30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87명으로 구성됐다.

농지은행관리원은 앞으로 농지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전국 농지의 취득, 소유, 이용 상황에 대한 상시 조사를 한다.

주요 역할은 ▲농지정보 수집·분석시스템 구축 ▲농지의 취득·소유, 이용·전용 현황 등 상시조사 관리체계 구축 ▲지자체 농지업무관련 교육 컨설팅 지원 ▲생애주기별 농지은행 사업 역할 강화 등이 있다.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으로 공사는 기존 농지은행사업 뿐 아니라 농지를 상시 조사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보다 쉽게 농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농업인들에게 보다 유용한 농지지원 및 정보를 제공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전남농협, 가격 폭락 양파 할인 판매·소비 촉진 캠페인

하락세 한 달...70% 이상 떨어져

정부 저장양파 출하 5월로 연기

농협 전남지역본부 양파 가격 하락세가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전남을 포함한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는 양파 소비를 늘리기 위해 30% 할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제휴카드나 정부 소비쿠폰을 활용하면 할인 받을 수 있다.

지난 18일 전남농협은 농협 하나로마트 남악점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전남양파 소비촉진 캠페인'을 열기도 했다.

이날 박서홍 전남지역본부장과 양파 산지 농협 조합장들은 양파에 대한 적극적인 소비를 당부했다.

전남은 연간 양파 45만톤을 생산하는 전국 최대 주산지이다. 재배면적은 전국의 30% 가량을 차지한다.

올해 전남 양파 재배면적은 5249ha로, 전년 5654ha 보다 7.1% 감소했다. 평년 재배면적 7036ha에 비해서는 25.4%나 줄어든 면적이다.

전남을 포함한 전국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4.7%(1만7656ha→1만8532ha) 감소했지만, 지난해 수확기 가격이 높았던 제주 극조생 양파 면적은 증가했다.

이 때문에 저장양파 출하량이 늘고 소비까지 위축되면서 양파 가격 하락세는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서홍·왼쪽 세 번째)와 지역농협 조합장들이 지난 18일 농협 하나로마트 남악점에서 '전남양파 소비촉진 캠페인'을 열고 있다. <전남농협 제공>

전남농협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양파 도매가격은 kg당 41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05원)보다 78.5%(-1495원) 폭락했다.

양파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 정부는 저장양파 2만t을 가공용(간 양파) 등으로 전환하며 5월로 출하를 연기했다. 제주지역은 체소가격안정제를 도입해 2022년산 극조생 양파 44ha 규모를 출하 정지했다.

전남농협은 양파 가격안정을 위한 소비촉진 캠페인과 함께 농협 임직원들의 양파 소비운동도 펼칠 계획이다.

박서홍 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 둔화로 양파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자칫 2022년산 햇양파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며 "하루에 한 개 이상 양파를 소비하며 면역력도 키우고 양파 농가에도 도움을 주길 소비자에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전남농협은 양파 가격안정을 위한 소비촉진 캠페인과 함께 농협 임직원들의 양파 소비운동도 펼칠 계획이다. 박서홍 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 둔화로 양파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자칫 2022년산 햇양파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며 "하루에 한 개 이상 양파를 소비하며 면역력도 키우고 양파 농가에도 도움을 주길 소비자에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고흥 나로도 어민들 해상풍력 반대 쫓기대회

### 여수·목포 이어 조성계획 철회 촉구

해상풍력 발전에 반대하는 어업인 쫓기대회가 여수·목포에 이어 고흥 나로도에서도 지난 17일 열렸다.

수협중앙회 전남본부는 이날 나로도항 물양장에서 나로도 해상풍력 발전 추진을 규탄하는 '어업인 쫓기대회-해상 시위'를 벌였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나로도 해상풍력발전 대책위원회와 나로도 어민회, 나로도 연안자랑 협회가 주관했다.

이날 나로도 어업인 200여 명은 쫓기대회를 열고 "수산업을 위협하는 일방적인 해상풍력단지 조

성계획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후 한 시간 동안 나로도 앞바다에서 어선 105척이 참여한 해상 시위도 벌어졌다.

대책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고흥군에 전달하고, 전남도와 주무부처, 해상풍력 민간 사업자에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나로도 어업인의 황금어장터인 나로도 전연안에 진행되고 있는 무분별한 해상풍력 발전 사업진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해상풍력 발전에 대한 전면적인 추진계획 재구성은 물론 어업인과의 대화를 통한 상생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80kg 쌀 한 가마니 값 20만원선 붕괴 눈앞

80kg 쌀 한 가마니 값 20만원선이 곧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15일 기준 정곡 80kg 산지 가격은 20만2368원으로, 전년 같은 날(21만9492원)보다 7.8%(-1만7124원) 감소했다.

정곡 가격(15일 기준) 지난해 수확기 들어 10

월 22만428원, 11월 21만3760원, 12월 20만7304원, 올해 1월 20만2964원, 2월 20만2368원 등으로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전남지역 벼 수매가(도정되지 않은 조곡 40kg)는 6만3860원으로, 전년 6만9429원에 비해 8.0%(-5569원) 급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오피스텔 신축 부지

-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옆
- 대지 156평, 상업지역
- 오피스텔 허가 득
- 매매가-평당 1200만

소유자. 010-3605-5000

## 경매물건 강력 추천

- 사건번호-2021타경 6943
- 소재지-광주 북구 신안동
- 대지-176평, 상업지역
- 경매일자-2022년 3월 10일

문의. 010-3605-5000